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김정선* · 장경희**

<차 례>

1. 머리말
2. 유아의 상호작용 능력 형성과 발달
3.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 발달 단계
4.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은 언어를 통한 목적 달성 행위이며 상호작용적인 언어 행위로,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수행 능력은 유아의 어휘, 문법 등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역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유아들은 출생 직후부터 울음, 미소 또는 사람 쳐다보기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기 시작하여, 약 12개월부터 언어를 통한 의도 전달이 이루어진다(Schwartz, 1983). 유아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이 주로 논의가 되었다(Dore, 1974 ; Tough, 1977, McShane, 1980 ; Coggins & Carpenter 1981).[1] 이러한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박휴용, 1994 ; 김영태, 2001).[2] 의사소통 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에 대해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의도라는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부터는 유아들이 주로 언어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도 자체의 하위 유형 분류보다는 의사소통에 나타난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상의 의도는 화행에 일차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화행 능력 발달을 통하여 유아의 소통 능력의 핵심 영역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아가 자신의 의도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12개월부터 시작하여 35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화행 수행 능력은 음운, 통사, 어휘와 같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

1) 이들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의도를 7가지(Dore, 1974), 9가지(Coggins & Carpenter, 1981), 16가지(McShane, 1980), 37가지(Tough, 1977) 등으로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수로 하위 분류하고 있으며, 언어만이 아니라 몸짓, 발성 등 다양한 산출 형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Owens(1999)에서는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거의 없는데 이는 의사소통 의도가 대화 맥락에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데도 원인이 있으며, 각 연령 단계에서 표현되는 의도들에 대해 연구자들간의 의견 일치가 되어 있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ore(1974)는 한 단어 시기의 유형을 중심으로, Coggins & Carpenter(1981)는 의도의 산출 형태를 몸짓, 몸짓-발성, 구어 등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2) 박휴용(1994)에서는 탁아소에 직접 방문하여 17개월에서 32개월에 해당하는 남자 4명, 여자 4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주 3회씩(매일 2시간)이 약 2달 동안 20회의 관찰을 기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유아는 거부, 요구의 의도를 가장 많이 산출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는 정보의 전달에 관련된 의도 표현을 많이 하고, 여아는 대인관계적 관계 형성이 의도를 많이 산출한다고 한다. 연령별 의도 표출을 비교해 보면, 각 생활 연령별로 요구나 거부 같은 기본적인 의도를 많이 표현하면서 생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위의 여러 가지 사물에 관련된 사물 참조 기능, 대상 참조 기능의 의사소통 의도가 발달해 가고 있다고 한다. 김영태(2001)에서는 한 명의 대상을 19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한 달에 1번 40분씩 엄마와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를 하는 상황을 비디오로 담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의도를 총 39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빈도를 산출하여 발달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관찰 초기에는 요구가 전체 의사소통 의도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언급과 진술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하는 유아 가운데 각 단계별 남녀 2명씩 총 16명을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 분포

개 월	남	여
12~17개월	2	2
18~23개월	2	2
24~29개월	2	2
30~35개월	2	2
소 계	8	8
합 계	16	

위의 유아들은 1주일에 1회 60분씩 각 가정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부모가 지속적으로 8개월간 녹음을 실시하였다. 부모는 가정의 녹음기를 사용하여 아이와의 자연스러운 놀이나 대화를 하며 녹음을 하였고 녹음에 대한 정보는 녹음일지에 기록하였다.[3] 유아의 발화는 발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세밀한 관찰이 없이는 음성 녹음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녹음 시 엄마가 아동의 불완전한 발화를 즉시 반복하도록 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도 녹음하도록 하여 발화에 대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2~23개월까지의 유아들은 발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녹음한 자료 가운데 유아의 발화만을 대상으로 파일당 발화수를 50 발화로 한정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정보에는 유아 발화의 표현 형태, 발화의 의미, 그리고 발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과 화행 정보들이 포함된다.[4] 24~35개월 유아의 대화는 유아와 부모 등 대화 참여자 모두의 발화를 전사 기

3) 성인들끼리의 대화와 달리 유아와 부모의 대화는 60분 내내 언어로 이루어져 진행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녹음자인 부모에게 유아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놀이나 일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이를 녹음하도록 하였고, 녹음일지에는 녹음 일시, 녹음 장소, 녹음 분량, 대화참여자 정보, 녹음 조건, 대화 상황 등의 정보들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4) 12~23개월 유아의 음성 자료 전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현 형태	의 미	비 고
인나.	일어나	엄마가 "인나?"라고 확인 질문으로 응대함

호에 따라 전사하였다.[5] 전사는 한 파일당 모두 2,000어절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유아의 발화는 평균 2~300발화에서 많게는 400발화 정도에 이른다.

이 연구는 위의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논의의 구성은 2장에서는 우선 혼잣말의 빈도 조사를 통해 상호작용 능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본다. 혼잣말에 대한 종전의 연구는 제한된 실험실에서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가지고 유아의 혼잣말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결

---

5) 24개월 이상 유아의 음성 자료 전사에 사용한 기호와 전사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전사 기호

전사 기호	기호 설명
?	상승 억양
!	활기에 넘치는 기운찬 어조
,	약한 상승 또는 하강, 약간의 휴지 등
.	한 발화의 끝
((-))	잘 들리지 않는 발화
[	두 사람이 말이 겹칠 경우
-	의도적인 장음
=	끊어진 발화
< >	사람의 음성 중 비언어적인 소리
( )	발화의 표준 형태
{ }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
" "	인용 표시
&	3초 이상 쉼이 나타나는 경우

(예) 엄마 : 어? ○○이는 여자야 남자야?
아동 : 여자.
아빠 : 여자야?
아동 : 엄마도 여자.
아빠 : 엄마도 여자고?
엄마 : 음—, 잘 아네.
아빠 : ××이는 엄마, 저기 여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아동 : 남자.
아빠 : 남자가 좋아?
&
엄마 : ××이는 남자야 여자야?
아동 : 남자.
엄마 : 남자야? 남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어서 좋아? 여자 동생보다 남자 동생이 더 좋겠어? & ((-)) 콧물이 나오네? & <웃음>

과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6]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녹음한 대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하여 유아 발화의 혼잣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혼잣말이 상호작용 능력 이전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의 빈도 조사는 상호작용 능력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단계별로 출현하는 화행의 유형별 빈도 조사를 통해 유아의 화행 수행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아의 상호작용 능력 형성과 발달

언어 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들은 언어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규칙들을 습득하게 된다. 상대와 상호작용의 구조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고 혼잣말을 중심으로 말을 하던 유아들은 점차 자신의 발화가 상대의 반응을 이끌 수 있고, 상대의 발화에 자신이 응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능력의 형성 및 발달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혼잣말의 변화 양상

혼잣말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로서 내적으로 자기 조절의 기능을 갖는 말이다. 자료에서 관찰된 혼잣말의 예는 다음과 같다.

---

6) 종래의 연구들에서는 실험실에서 제한된 과제들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아들의 지적 자극을 유발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았으며 혼잣말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이병비, 2000 : 3).

(1)

표현형태	의 미	비 고
아이 지지!	아이! 지지하다	동전 가지고 놀면서 혼자 말함

(2) 아동 : 기차가 넓－어－.
엄마 : 기차가 넓어?
아동 : 됐다－. 기차가 기차 ((－)).
엄마 : 기차가 그렸어?
아동 : #칙 칙 폭 폭# 아! 아니다 바퀴는?

(1)은 12~23개월의 예이고, (2)는 24~35개월의 예이다. (1)의 예에서 아동은 동전을 가지고 혼자 놀면서 발화하고 있는 것이며, (2)에서는 기차를 그리면서 혼자 발화하는 것이다. (2)에서 엄마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이는 엄마의 발화와는 상관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

자료에 나타난 혼잣말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단계별 혼잣말의 빈도와 백분율

단 계	총 발화수	혼잣말	
		빈 도	백분율
12~17개월	1,574	529	33.6%
18~23개월	2,183	194	8.9%
24~29개월	2,637	259	9.8%
30~35개월	4,480	297	6.6%

총 발화 가운데 혼잣말이 차지하는 빈도와 백분율을 보면, 12~17개월에 혼잣말이 33%로 다른 단계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가, 18개월 이후에는 10% 미만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단어 시기에 있는 12~17개월 단계의 아동들은 언어적인 상호작용 능력이 개발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리고 18개월 이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녹음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엄마는 녹음을 위해 아동과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이전 단계에 비해 혼잣말의 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

나 18개월 이후 전보문 이상을 사용하게 된 아동들은 언어적인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된 점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7]

2.2.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의 발달

요구 화행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화행, 즉 발화교환 행위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화행으로 진술, 질문, 명령, 청유 등의 화행이 있다. 응대 화행은 발화 교환 행위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화행으로 대답, 수락, 거부 등의 화행이 있으며 대화를 끝낼 수 있다(장경희, 1999). 대화에서 선행 화행의 요구 기능이 상대 화자를 대화에 참여하게 하며, 요구 화행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응대가 수행됨으로써 대화라는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구성된다. 따라서 유아의 발화에 나타난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의 빈도 조사를 통해 유아의 상호작용 능력의 발달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료에 나타난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의 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단계별 요구화행, 응대화행, 혼잣말의 빈도와 백분율

단 계	요구 화행		응대 화행		혼잣말		총 발화수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12~17개월	467	29.7%	578	36.7%	529	33.6%	1,574
18~23개월	749	34.3%	1240	56.8%	194	8.9%	2,183
24~29개월	1,403	53.2%	975	37.0%	259	9.8%	2,637
30~35개월	2,332	52.1%	1,851	41.3%	297	6.6%	4,480

<표 3>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18~23개월에는 혼잣말이 줄어들면서 응대 화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요구 화행이 응대 화행보다 높은 빈도로 자리 잡아 간다. 18~23개월에 응대 화행이 증가한 것은 아동이 비로소 엄마의 요구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을 수

7)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아들의 활동 유형, 성인 참여의 유형, 또래 참여의 유형, 지능,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다(이병비, 2000 : 4).

행하며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혼잣말이 급격히 줄면서 확장된 응대 화행 빈도는 유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 능력의 형성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요구 화행도 12~17개월에는 30% 미만이었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요구 화행을 수행하는 선행 화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응대 화행을 수행하는 후행 화자로서의 역할 교대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들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에 출현하는 화행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 발달 단계

이 장에서는 12개월부터 6개월 단위로 구분한 단계별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에 출현하는 화행의 유형과 빈도를 조사하여 유아의 화행 능력의 발달 단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3.1. 12~17개월 유아의 화행 유형과 빈도[8]

12~17개월 유아의 요구 화행에 나타난 화행 유형과 빈도를 보이면

8) 이 연구에서 분석한 화행 목록은 '진술－수용/거부, 질문－대답, 명령－수락/거절, 청유－수락/거절, 인사－인사, 부르기－대답, 감탄, 모방, 명명'이다. 이러한 화행 목록이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명명은 12~23개월에만 설정하였는데, 이 시기에 유아는 사물을 인지하며 범주화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스스로 명명 화행을 활발히 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24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명명은 진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행 빈도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승복 역, 2001 : 277).

다음 <표 4>와 같다. 요구 화행 가운데 부르기가 133회로 28.5%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진술이 111회로 23.8%, 명령이 88회로 18.8%, 명명이 63회로 13.5%를 차지하고 있다. 부르기나 명령은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높은 빈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진술과 명명은 사물과 세상에 대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12~17개월의 요구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부르기	133	28.5%
진 술	111	23.8%
명 령	88	18.8%
명 명	63	13.5%
자발적 모방	34	7.3%
질 문	24	5.1%
감 탄	7	1.5%
청 유	4	0.9%
인 사	3	0.6%
합 계	467	100.0%

12~17개월의 응대 화행의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면 <표 5>와 같다.[9] 이 단계에서는 총 578발화 가운데 학습용 모방이 278회로 48.1%, 대답이 236회로 40.8%를 차지하며 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용, 수락이 각각 7.8%, 3.3%로 나타나고 있다.[10]

9) 이 연구에서 응대 화행은 아동이 선행 화자의 화행에 응대한 경우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언어 발달 시기에 있는 아동들은 선행 화자의 화행에 응대를 하지 않거나, 잘못 응대하거나, 늦게 하는 등의 응대 미숙이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응대 결여, 응대 오류, 응대 지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10) 12~23개월 단계에서는 명령 화행과 청유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였다. 출현 빈도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시기 아동의 행동은 대부분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어서 엄마의 발화가 명령과 청유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표 5〉 12~17개월의 응대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학습용 모방	278	48.1%
대 답	236	40.8%
수 용	45	7.8%
수 락	19	3.3%
합 계	578	100.0%

유아의 발화에서 모방은 매우 빈번하게 출현하는 발화이다. 모방은 요구 화행에 나타나는 자발적 모방과 응대 화행에 나타나는 학습용 모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발적 모방은 유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성인의 언어를 모방하여 발화하는 것이다. 아동의 이러한 자발적 모방은 단순히 소리 연습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놀이의 하나로 여겨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언어 습득 단계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자발적 언어 학습 책략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학습용 모방은 엄마의 지시에 따른 모방으로 발음이나 표현을 교정해 주기 위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방이다. (3)은 자발적 모방의 예이고, (4)는 학습용 모방의 예이다.

(3) 엄마 : 어떻게 하는데?
아동 : 어((뜨))케.
(4) 엄마 : 어. 노랑나ㅡ비! 호랑나ㅡ비.
아동 : 호앙나비(호랑나비)!

(3)의 예는 엄마가 모방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지만 아동이 자발적으로 모방을 한 경우로 엄마의 선행 발화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발음만을 따라하며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4)의 모방은 엄마가 아동이 따라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아동이 엄마의 지시에 따라 모방하는 것이다. 즉 엄마의 선행 발화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응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모방과 학습용 모방은 단계에 따라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2~17개월에는 자발적 모방과 학습용 모방이 모두 높

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학습용 모방은 이후 살펴볼 다음 단계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언어 습득기에 있는 아동에게 양육자인 엄마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2. 18~23개월 유아의 화행 유형과 빈도

다음 <표 6>은 18~23개월 아동의 요구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을 보인 것이다. 이 시기에는 총 749발화 가운데 진술이 249회로 33.2%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명령이 192회로 25.6%로 나타나 이전 단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17개월의 단계에서 부르기로 수행되던 명령 화행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수행된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전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문 화행이 11.1%로 새롭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자발적 모방, 부르기, 명명이 68회, 61회, 56회로 각기 9.1%, 8.1%,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18~23개월의 요구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진 술	249	33.2%
명 령	192	25.6%
질 문	83	11.1%
자발적 모방	68	9.1%
부르기	61	8.1%
명 명	56	7.5%
감 탄	31	4.1%
인 사	5	0.7%
청 유	4	0.5%
합 계	749	100.0%

응대 화행의 결과를 보기로 한다. <표 7>을 보면, 이 시기에는 학습

용 모방이 이전 단계보다 줄어들고, 대답이 838회로 67.6%를 차지하며 대답의 순위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화행이 거의 응대 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동과 사물 이름 익히기 활동을 하며 질문이나 모방 유도 화행을 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부터 거부나 거절의 화행을 볼 수 있다.

〈표 7〉 18~23개월의 응대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대 답	838	67.6%
학습용 모방	310	25.0%
수 용	43	3.5%
수 락	40	3.2%
거 부	8	0.6%
거 절	1	0.1%
합 계	1240	100.0%

3.3. 24~29월 유아의 화행 유형과 빈도

24~29개월의 요구 화행의 빈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8>을 보면, 이 시기에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화행은 진술이다. 진술이 712회로 50.7%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질문, 부르기, 명령, 자발적 모방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 단계인 18~23개월과 비교해 보면 질문 화행이 두 번째 빈도로 나타난 것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표 8〉 24~29개월의 요구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진 술	712	50.7%
질 문	229	16.3%
부르기	151	10.8%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명 령	148	10.5%
자발적 모방	82	5.8%
감 탄	59	4.2%
청 유	19	1.4%
인 사	3	0.2%
합 계	1403	100.0%

다음은 24~29개월의 응대 화행의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대답이 52.4%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은 학습용 모방이 263회로 2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답과 학습용 모방이 응대 화행의 주를 이루고 있다.

〈표 9〉 24~29개월의 요구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대 답	511	52.4%
학습용 모방	263	27.0%
수 용	50	5.1%
거절(명령)	49	5.0%
거 부	40	4.1%
수락(명령)	34	3.5%
대답(부르기)	14	1.4%
거절(청유)	7	0.7%
수락(청유)	7	0.7%
합 계	975	100.0%

3.4. 30~35개월 유아의 화행 유형과 빈도

30-35개월의 요구 화행의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을 보면, 진술이 1,104회로 47.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질문,

명령, 부르기 청유 감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단계에는 요구 화행의 주 화행인 진술, 질문, 명령, 청유 등의 화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모방은 1% 미만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30~35개월의 요구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진 술	1104	47.3%
질 문	652	28.0%
명 령	347	14.9%
부르기	84	3.6%
청 유	65	2.8%
감 탄	49	2.1%
인 사	20	0.9%
자발적 모방	11	0.5%
합 계	2332	100.0%

응대 화행의 경우도 전 단계와는 차이가 난다. 질문과 학습용 모방이 여전히 1, 2순위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학습용 모방의 비율이 11.3%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진술에 대한 수용/거부, 명령에 대한 수락/거절과 같이 응대 화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부모의 언어를 따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화행을 스스로 수행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표 11〉 30~35개월의 응대 화행의 화행별 빈도와 백분율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대 답	1211	65.4%
학습용 모방	209	11.3%
수 용	160	8.6%
수락(명령)	94	5.1%
거절(명령)	72	3.9%
거 부	67	3.6%

화행 유형	빈 도	백분율
수락(청유)	17	0.9%
대답(부르기)	15	0.8%
거절(청유)	6	0.3%
합 계	1851	100.0%

3.5.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단계별 요구 화행 가운데 고빈도로 나타나는 화행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단계별 요구 화행의 고빈도 화행

순위	12~17개월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1	부르기(28.5%)	진술(33.2%)	진술(50.7%)	진술(49.3%)
2	진술(23.8%)	명령(25.6%)	질문(16.3%)	질문(28.0%)
3	명령(18.8%)	질문(11.1%)	부르기(10.8%)	명령(14.9%)
4	명명(13.5%)	모방(9.1%)	명령(10.5%)	부르기(3.6%)
5	모방(7.3%)	부르기(8.1%)	모방(5.8%)	청유(2.8%)

12~17개월에는 부르기가 1위를 하였지만, 다음 시기부터는 진술이 요구 화행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4~29개월부터는 부르기나 명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진술이 가장 빈번히 쓰이는 화행으로 나타난다.

명령은 12~17개월에는 3위에 있었지만 18~23개월에는 2위로 나타나다가 이후 단계부터는 3, 4위를 차지한다. 12~23개월에 부르기와 명령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어 발달 초기의 아동들이 자신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화행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이다.[11] 특히, 부르기는 한 단어 시기인 12~17개월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데 이때의 부르기는 성인과 같이 대상 호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수행 요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경희 · 김정선, 2003).

질문은 24~29개월 단계부터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0-35개월이 되면 20%가 넘게 나타난다. 질문 화행이 이처럼 늦게 발달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보 결핍을 해소하려는 인지 체계의 발달 단계, 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언어 수행 능력, 즉 질문 수행 능력의 발달 시기 등과 관련된 현상으로 생각된다(장경희 · 이삼형 · 김정선, 2003). 이상과 같이 나타난 화행의 변화는 아동이 자라면서 발화의 기능별 빈도가 변한다고 하는 Wells(1985)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12]

다음, 응대 화행의 단계별 고빈도 화행은 <표 13>과 같다. 모든 단계에서 학습용 모방과 대답이 고빈도로 나타나며 응대 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12~17개월에서만 학습용 모방이 대답보다 높은 빈도로 출현하다가 이후 단계부터는 대답이 가장 고빈도로 출현하며, 점차 학습용 모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단계별 응대 화행의 고빈도 화행

순위	12~17개월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1	학습용 모방(48.1%)	대답(67.6%)	대답(52.4%)	대답(65.4%)
2	대답(40.8%)	학습용 모방(25.0%)	학습용 모방(27.0%)	학습용 모방(11.3%)
3	수용(7.8%)	수용(3.5%)	수용(5.1%)	수용(8.6%)
4	수락(3.3%)	수락(3.2%)	거절 : 명령(5.0%)	수락 : 명령(5.1%)
5	–	거부(0.6%)	거부(4.1%)	거절 : 명령(3.9%)

11) 이정민(1997 : 156)에 의하면 명령 화행은 화행 가운데 맨 먼저 습득되는 화행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12) Wells(1985)는 어린이가 자라면서 화용적 기능의 빈도가 변한다고 하며 15개월이면, 75%의 발화가 표상적, 표현적, 절차적 기능을 갖는데, 여기에는 이름붙이기와 부르기가 지배적인 언표내적 기능이 된다고 한다. 21개월이 되면 통제 기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표현 기능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이고 교수적인 기능이 드물어진다고 한다. 요구 원하기, 이름붙이기, 부르기, 연습 같은 초기 언표내적 기능 일부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급속히 감소한다고 한다(이승복, 2001 : 277에서 재인용).

응대 화행은 요구 화행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자체의 능력보다는 선행 화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단계별로 고빈도 화행이 변하는 요구 화행과는 달리 응대 화행에서는 12개월에서 35개월 전 단계에서 대답, 학습용 모방, 수용 화행이 1~3위 내에 분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는 모두 응대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선행 화행 가운데 어떤 화행에 주로 응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

마지막으로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에 모두 나타나는 모방 발화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면, 자발적 모방은 12~29개월까지 나타나다가 30~35개월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용 모방의 경우도 30~35개월이 되면 이전 단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30개월 전후가 되면 언어 지식의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동 스스로 연습하는 모방을 하지 않는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 또한 아동에게 학습용 모방을 점차로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본다.

4. 맺음말

지금까지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작용 능력의 형성과 발달 과정, 화행 수행 능력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잣말은 12~17개월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은 점차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요구 화행의 수행 빈도를 발달 단계별로 보면, 12~17개

13) 선행 질문의 유형에 따른 대답 수행 여부는 남은 과제라 생각한다.

월에는 부르기, 진술이 많이 나타나고, 18~23개월에는 진술, 명령이, 24~29개월에는 진술이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30~35개월에는 여전히 진술이 많이 나타나고, 질문, 명령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유아기의 아동은 욕구 충족과 관련된 행동 요구 화행이 먼저 발달하고 점차로 진술 수행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셋째, 응대 화행에 나타난 단계별 주된 화행을 보면, 전 단계에 걸쳐 학습용 모방과 대답이 고빈도로 나타났다. 유아 발화의 특징인 모방 발화는 12~29개월까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30개월을 전후로 감소한다. 이 경우도 응대 수행 능력이 발달하면서 모방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본 논문은 2007. 11. 10. 투고되었으며, 2007.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7.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구현정(2003), "담화분석의 응용 : 구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2003년 겨울학술발표대회 초록집.

김영태(2001),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7~39.

박휴용(1994), 『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배소영(1996),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대한 음성언어의학회지』 7-1.

서재석 외 옮김(2000), 『화용론』, 박이정.

이병비(2000), 『5세아의 혼자말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이승복 옮김(2001),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이승복(1997), "언어 습득의 책략과 발달 과정", 『새국어생활』 제7권 1호, 53~79.

이익환 · 권경안(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인섭(1986), 『아동의 언어발달』, 개문사.

이정민(1997), "언어습득과 화용 규칙", 『새국어생활』 제7권 1호, 143~178.

이현진 외 옮김(2001),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장경희(1998), "화행의미론", 『한국어의미학』 2.

장경희(1999a), "대화의 접속과 내포", 『텍스트언어학』 6, 25~44.

장경희(1999b),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의미학』 5, 89~114.

장경희(2000), "청유 화행에 대한 수락과 거절", 『텍스트언어학』 9, 111~143.

장경희(2002), "국어의 지시 화행에 대한 응대 수행의 방법", 『문법과 텍스트』, 537~571.

장경희 · 김정선(2003), "유아의 요구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 단계", 『한국어교육』 14-2, 327~360.

장경희 · 이삼형 · 김정선(2003), "유아의 질문 화행 습득 과정", 『텍스트언어학』 15, 401~425.

전병운(1994), 『정신지체아의 화용 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조명한(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 책략모형』, 서울대학교출판부.

조명한 · 정복선(1975), "아동의 언어발달단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Ⅰ)-초기언어", 『응용언어학』 7권 1호.

조숙환(1997), "언어 습득론", 『새국어생활』 제7권 1호, 3~28.

Berk, L. E.& Garvin, K. M.(1984), "Development of private speech among Low-Income Appalachian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0.

Coggins, T. E. & Carpenter, R. L.(1981), "The communicative intention inventory: A system for observing and coding children's early intentional communication", *Applied Psycholinguistics*, 2.

Dore, J.(1974), "A pragmatic description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ingusitic Research*, 3.

Hjertholm et. al.(1968), "Private speech: Four studies and A Review of Theories", *Child Development*, 39.

McShane, J.(1980), *Learning to talk*, Cambridge, England:Cambridge University Press.

Miller, J.(1981),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Owens, R. E.(1999), *Language Disorder :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edham Heights, MA : Allyn & Bacon.

Schwartz, R.(1983), "Diagnosis of speech sound disorders in children", In Mertus & Wienberg (Eds.), *Diagnosis in speech-language pathology*, Baltimore, MD : University Park Press.

Tough, J.(1977), The Development of meaning, London : Unwin Education Books.

Wells, G.(1985), "Preschool literacy-related activities and success in school", In D. R. Olson, N. Torrance, & A, Hildyard(Eds.), *Literacy, language, and learning*,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유아의 화행 수행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김정선 · 장경희

이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의도가 언어로 표현되는 시기인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화행 수행 능력 발달 단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 능력의 형성과 발달, 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을 각각 혼잣말, 요구화행, 응대화행, 화행별 유형에 대한 빈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잣말은 12~17개월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은 점차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요구 화행에 나타난 단계별 주된 화행을 보면, 12~17개월에는 부르기, 진술이 많이 나타나고, 18~23개월에는 진술, 명령이, 24~29개월에는 진술이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30~35개월에는 여전히 진술이 많이 나타나고, 질문, 명령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셋째, 응대 화행에 나타난 단계별 주된 화행을 보면, 전 단계에 걸쳐 학습용 모방과 대답이 고빈도로 나타났는데, 점차 학습용 모방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핵심어】 상호작용능력, 화행 수행 능력, 요구화행, 응대화행, 혼잣말, 자발적 모방, 학습용 모방

<Abstract>

A Study on the Speech-act Performance Ability in Early Childhood

Kim, Jung-sun & Chang, Kyung-h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a ability of speech-act performance Korean children of 12~35 months. For this purpose, we researched the frequency of speech-a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12~17 months, the private speech appeared in high frquency and from the on 18~23 months, it was decreased. And the demanding speech-act and the responding speech-act were appeared almost similarly in 30~35 months. 2) This study was examined the frequency of speech-act type in demanding utterances. The results were arranged the order of frequency as follows. In 12~17 months, calls, statements. In 18~23 months, statements, directions. In 24~29, Statements were appeared remarkably plentiful. In 30~35 months, statements, questions, directions. 3) The major speech-act was examined responding utterance in each age. In the all range, learning-imitations and answers were appeared, but the forward were decreased in 30~35 months.

【Key words】 interaction ability, ability of speech-act performance, demanding speech-act, responding speech-act, private speech, operant-imitation, learning-imitation